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2011년부터 공공기관도 국제회계기준 도입

- 최근 자본시장 세계화에 따라 통일된 회계기준 사용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공공기관도 해외사업 및 자금조달 등을 수행함에 있어 자본시장의 세계화 추세에 대응하고 회계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.
 - 세계 110개국이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예정하고 있으며, 우리 민간기업들도 이런 추세에 대응하고자 지난 '07.3월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기로 결정함.
- 공공기관 국제회계기준 적용 방안으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모두 도입할 예정이며, 도입 시기는 사업규모, 도입 여건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임.
 - 공기업은 2011년, 준정부기관은 2013년에 적용할 계획이나 일부 준정부기관은 조기 적용도 가능한 것으로 밝힘.
 - 결국 공공기관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은 적용시기의 문제일 뿐 궁극적으로는 모든 기업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며, 이를 통해 공공기관 간 비교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리측면에서 통일성을 제고한다는 입장임.
- 정부는 '공공기관 국제회계기준 도입 추진 방안'을 확정하고 오는 25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,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주요 변화 및 영향 등을 설명할 계획임.
 - 이후 2010년부터 2년간 공공기관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 및 전산시스템 수정·보완, 시범운영 및 교육 등을 도입 일정에 맞게 추진할 방침이며, 준정부기관은 2011년 도입기관의 추진상황을 참조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임.
- 이번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공공기관은 재무정보 공시가 개별재무제표에서 연결재무제표로 전환되며, 자산부채도 역사적 원가 위주에서 공정가치로 평가됨.
 - 또한 현행 법률·정책 목적의 특정 회계처리를 규제·허용하였으나 향후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실질에 맞는 회계처리 규정으로 전환됨.

(공공기관 국제회계기준 도입 방안 발표, 기획재정부 국고국 출자관리과, 6/17)